

‘문과 침공’ 막으려다... 광주도 ‘사탐런’ 현상 가속

2026학년도 수능 원서를 접수한 광주 지역 수험생들을 분석한 결과, 자연계열 지원자가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지역에서 1만7731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5.3% (885명) 늘어난 수치다.

지원자별로는 재학생이 1만2658명 (71.4%)으로 전년보다 974명 늘어났으며, 졸업생은 4243명 (23.9%)으로 177명 감소했다. 검정고시생 등 기타 지원자는 830명 (4.7%)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자 9230명 (52.1%), 여자

자연계열 지원자, 상대적 쉬운 사회탐구과목 선택 수능 원서접수 마감...광주 1만7731명 접수 5.3% ↑

8501명 (47.9%)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2007년생 황금돼지띠 출산 붐 여파로 올해 수능 지원자 중 고3 재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의대 정원 원상복귀(±1509명) 등으로 졸업생은 소폭 감소했다.

선택 영역별 지원 현황은, 국어의 경우 ‘화법과작문’을 선택한 응시생이 1만2730명 (71.8%)이었으며, ‘언어와매체’ 4877명 (27.5%) 순이었다. 수학의 경우는 ‘확률과통계’ 9019명

(50.9%), ‘미적분’ 7428명 (41.9%), ‘기하’ 592명 (3.3%) 순이었다.

영어는 1만7430명 (98.3%)이 응시했으며,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301명 (1.7%)이었다. 한국사는 수능 필수 응시 과목으로 원서를 접수한 1만7731명 전체가 응시 대상이다.

탐구의 경우 사회나 과학탐구는 17개 과목 중 계열과 관계없이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직업 탐구는 ‘성공적인직업생활’을 포함해 2개까지 선택 가능하다.

이중 사회탐구 2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9414명 (53.1%)이었으며, 과학탐구 2개 과목 응시자는 5405명 (30.5%)이다. 사회탐구 1개 과목, 과학탐구 1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2357명 (13.3%)이었으며, 직업탐구 선택 학생은 106명 (0.6%)이었다.

시교육청은 올해 사회탐구 1개 과목과 과학탐구 1개 과목을 선택한 지원자가 전년도 9.7%에서 13.3%로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과학탐구 필수 기준을 폐지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과학탐구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사회탐구 선택자가 늘어난 이른바 ‘사탐런’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능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탐구 선택과목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생활과윤리 6066명 (32.5%), 사회문화 6062명 (32.4%), 한국지리 1693명 (9.1%) 순이었다.

과학탐구 선택과목은 생명과학 I 3660명 (33.9%), 지구과학 I 3510명 (32.5%), 물리학 I 1834명 (17.0%), 화학 I 1173명 (10.9%) 순이었으며, 생명과학 II, 물리학 II, 화학 II, 지구과학 II 순으로 선택했다.

특히 사회탐구 1개 과목과 과학탐구 1개 과목을 선택한 지원자의 선택과목은 사회적으로 쉬운 사회탐구 선택자가 늘어난 이른바 ‘사탐런’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능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현상)이

다. 이른바 ‘사탐런’ 현상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생명과학 I 과 사회문화를 선택한 조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교육청은 수능 응시 현황을 분석해 대입 지원 전략을 제시했다.

내신성적이 좋은 학생은 서울권대학 지역균형전형 (학교장 추천) 과 지역거점대학 학생부교과전형을 적극 공략하고, 학교 생활기록부가 좋은 학생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적극 공략하는 것을 권고했다.

또 수시 지원 시 내신성과 학교생활기록부도 합적 가능성을 판단하고, 수능 성적을 예측해 수시에 끌려가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교통약자에 힘 되는 서구 ‘천원택시’ 눈길

사업 시행 100일...의료 취약계층 교통복지 호응

광주 서구의 선한 영향력이 교통복지까지 펼쳐지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의료 취약계층 교통복지 정책 ‘천원택시’가 시행 100일을 맞았다.

‘천원택시’는 중증질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할 때 ‘10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을 서구가 지원하는 교통복

지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중증 암·난치성 질환자, 결핵·중증 화상환자 등 1100여명으로, 서구는 매일 택시 이용권 2매씩 제공하고 있다.

서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주넷과 을콜택시와 협약을 맺고, 이용자가 전용번호로 전화하면 곧바로 택시가 배차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택시 이용자가 1000원만 내면 광주권은 최대 2만원, 화순전남대병원엔 최대 3만원까지 서구가 지원한다.

이 같은 노력에 사업 시행 100일 동안 총 398명이 976회 택시를 이용했으며, 이에 따른 지원금은 1000여만원에 이른다. 또 이 사업을 고향사랑기부금 목적사업과 연계해 ‘착한 동행’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착한도시 서구의 선한 영향력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공동체 실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광주시 소각장 무효화 촉구 광주시청앞 집회.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장전입이 확인된 광주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 부지 선정 무효화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 SRF, 소각시설 철거·세정탑 설치 논란

운영사 “백색 연기 제거” vs 대책위 “비용 절감” 묵은 쓰레기가 악취 원인...성능 보증 위반 지적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자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엔씨가 악취 제거 효과가 뛰어난 소각 시설을 지난해 철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에 포스코이엔씨는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백색 연기를 제거하고자 악취 제거 방법을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는 오히려 악취 피해가 커졌다고 맞서고 있다.

9일 광주 양과동 SRF 악취개선민관합동 전담팀(TF) 등에 따르면 포스코이엔씨는 지난해 4월 30억원을 들여 악취 제거를 위한 소각 시설을 철거하는 대신 악취 세정탑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각 시설과 악취세정탑 모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설비지만, 불법 소각으로 인해 하얀 연기가 발생한다는 의심 민원이 있어 제거 방식을 변경했다는 것이 포스코이엔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들은 악취 제거 방식의 변경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악취를 없애는 방법에는 포집한 악취를 불에 태우거나 약품을 이용해 제거하는 악취제거 2가지가 있는데, 소각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악취제거 방법은 악취에 포함된 물질의 pH 값에 따라 산성(차아염소산)·염기성(가성소다) 물질을 이용해 중화시켜 악취를 제거하는 반면, 소각 방법은 악취 유발 물질의 분자 연결고리를 불에 태워 끊어내 효율이 높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아울러 악취가 발생한 원인은 애초 포스코이엔씨가 협약 시에 약속했던 ‘성능 보증’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협약 당시 연간 287일, 하루 16시간 처리시설을 가동해 800t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루 24시간 시설 가동을 하고도 500t의 폐기물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묵은 쓰레기가 썩으면서 악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SRF의 악취를 분석한 결과표를 살펴본 결과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난 8월께 시설 가동시 악취 기준치의 2배, 혹은 3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67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포스코의 시민협치강탈 시도 저지 광주시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포스코이엔씨는 운영비용 절감을 이유로 냄새 제거 성능이 탁월한 소각 시설을 없애고 한계가 있는 세정탑을 설치했다”면서 “또 외부 기관을 맡기지 않고 자가 측정을 진행해 ‘악취 이상 없음’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검사까지 진행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포스코이엔씨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RF에서는 지난 6월부터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법 악취가 여러 차례 측정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 광주시, 남구, 시의회, 구의회,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포스코이엔씨는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 보수·시설 신설 등을 이유로 오는 19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임영민 기자 looks@gwangnam.co.kr

고객과 함께 하는 Y-MART

일정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14

확장이전 OPEN

☎ 운영시간 : 07:00~23:00(365일 연중무휴)
☎ 대표전화 : 010-3086-5302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14와이식자재마트 본점

광산구 ‘남도맛페스티벌’ 맛·문화 향연

12~13일 광주송정역세권 일대...재즈 공연 등 행사 다채

광주 광산구는 오는 12~13일 광주송정역세권 일대에서 ‘제2회 광주송정남도맛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제2회 광주송정남도맛페스티벌은 광주송정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호남권 대표 관문인 광주송정역과 인접한 상권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5개 상권의 상인 주도로 마련한 행사다.

행사 첫날, KIA타이거즈 야구경기 생중계가 진행되고, 1913송정역시장과 광산로 일대 (장터국밥~롯데)에서 야시장

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이틀날에는 △꿈어울 광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스즈밴드 SOOF 등 식전 공연과 박지현 등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의 축하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운다.

이번 축제의 핵심인 먹거리는 광주 송정의 지역 맛집과 다문화 음식점 40여 개소가 참여해 남도의 맛을 선보인다.

광주송정역세권 상권 활성화 사업의 대표상품인 △송송칩 (견과류칩) △송송송 (유부물김밥) △송송불 (광주주먹밥튀김)



△치즈표빵 (가짜 표 모양 치즈빵)을 맛볼 수 있으며 축제 한정 메뉴와 특별 할인으로 관람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다양한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동행축제와 연계해 ‘소담스퀘어 광주’ 플랫폼에서 상권의 특산물을 실시간으로 전국에 소개·할인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야구 유니폼을 입고 방문한 선착순 100명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한다. 임정호 기자 jh4415@